

건축사사무소로 살아가기

Existing as architectural firm

건축설계일감이 줄어 불경기라고 생각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개인적으로 보면 반년이상 힘들게 버텨온 것 같다. 엇그제 만난 한국에 있는 사무실들과 같이 대형경기설계 일을 하는 미국사무실의 대표(한국인H)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다.

그분 말이 미국 대공황 때 비고용상태(unemployment)가 23%였는데 현재 미국건축계의 비고용상태가 43%고 앞으로 60%까지 갈 것 같다는 우울한 소식을 들려주었다.

미국에서 나오는 잡지AR(Architectural Record)에 보니 사무실에서 해고된 직원들이 스스로없이 책에 나와서 앞으로 수 십 번이라도 좋으니 취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선언을 하며 부끄러워함 없이 전신사진까지 나오는가 하면 어떤 젊은이는 어차피 건축설계일 자체가 부족하니 자기가 만들 줄 아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팔겠다는 이야기도 사진과 같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우리네 건축 잡지에는 이러한 현재의 건축불경기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반응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그저 친분이 있는 건축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 어렵듯이 설계일감이 부족하여 사무실운영이 어렵다는 기운을 느낄 뿐이다. 우리 사무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라 직원들이 순번을 정해 쉬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한편 토목분야에 종사하는 친구의 대형사무실은 4대강 유역개발 때문인지 직원이 없어 못 뽑는다는 이해하기 힘든 상황을 즐기고 있다. 이 상반되는 건축과 토목분야의 현상이 벌어지는 한국에서 앞으로 건축설계 사무실을 어떻게 운영해야하는지 그 묘수풀이를 생각해본다.

연전에 대학동문건축사회장을 우연찮게 맡은 적이 있다. 엉뚱하게 내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몇 달을 보낸 후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건축사동문회장이 되어보니 그동안 건축 잡지에 주로 작품을 소개하는 건축가들을 주로 알고 사귀어 왔는데 잡지에 자주 나지는 않지만 사무실에 직원도 많고 운영이 아주 잘되는 사무실들이 동문선후배 중에 제법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들을 추려서 방문하여 조사를 해보았다.

건축설계를 열심히 잘해서 이름을 내는 것을 지상의 목표로 달려온 많은 건축가들이 볼 때 이와 같은 사무소들의 성공은 사실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몇 개의 실력 있는 사무실들을 방문하고 내가 그동안 추구해온 설계를 잘하는 것 외에 내린 결론은 이렇다.

우선 설계단계에서 최선을 다하여 건축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다음 감리의 필요성을 역설하여 설계의 연속단계로서 적절한 감리비 계약을 실현한다. 이 경우 매달 일정액의 수입이 확보되도록 계약을 한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설계수주는 간헐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매달의 고정 지출에 대한 정기적인 수입원으로 잡기에 부적절한 면이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또한 감리 기간에 건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그러면 건축주가 사무실의 마케팅 담당자가 된다.

현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사무실을 꾸려간다. ■



최동규 / Choi, Dong-kyu, KIRA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한국건축기협회 명예이사
-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 편찬위원회 위원장